

평균의 함정 뛰어 넘는 광주 교육의 변화

기고

박병훈

광주교육시민엠베서더
특특브레인심리발달
연구소 대표



현대사회는 원시형 인간과 첨단형 인간이 공존하고 있다. 교육의 결과 차이라고 생각한다.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가며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뚤어진 사람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자신이 보내는 시간은 만난 사람과의 경험과 의미들이 기억과 삶의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이다. 지난 시절 광주교육은 평균의 함정에 갇혀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수월성을 계발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12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내 아이가 코를 짹짹 불면서 집에 왔다. 학교에서 밤이 늦도록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도서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는 것이다. 상담실에서 만난 부모들은 광주에서 자취를 감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낼 생각에 몰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 전 수능 만점을 받고 의과대학에 진학했던 학생이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여자 친구가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해 저지른 충격적인 일이었다. 더욱 슬펐던 것은 여자 친구를 살해하는데 그가 배운 의학 지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들

은 교육이 교육 주체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모른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다. 처음에는 그렇게 대답한 아이들을 오해했다. 대답을 하기 싫어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진짜로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 가치, 정서, 기술과 지식 등을 배운다.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환경 가운데 한 가지가 교육환경일 것이다. 그래서 사유의 능력을 기르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다양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교육의 본질이다. 다양한 실력이 지식의 창고만 크게 늘리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지식만 쌓고 도덕적 양심을 갖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덕성과 관련해 도덕의 문제는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고도 그것을 행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플라톤은 사람은 전생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이에 반해 경험주의자인 로크는 인간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석판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로크의 주장은 경험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관점이다. 기존의 우리 교육은 점수받기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창의성을 희생시키

는 교육 그 자체였다. 어떤 주어진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정답을 찾아 좋은 점수를 맞는 것에만 몰두시키는 교육이었다. 개개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수월성을 빛나게 하는 교육이 아니었다. 이제 평균 수명이 백세인 호모 헨드레드 시대다. 지식의 유통 기한이 매우 짧고 통용되는 공간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지속해서 초기화시켜야 한다.

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 또한 적절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광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적합한 선택이다. 글로벌 세계 리더 한 바퀴, 독서 교육의 활성화, 365 스테디카페 등은 따뜻한 인성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 디지털 환경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경험학습을 통한 교육이기도 하다. 교육은 경험의 변형을 통해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콜브는 경험학습이 이루어지면 여러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화, 실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과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수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실제 참여를 통해 배우는 것을 즐기는 수용의 태도를 갖게 된다고 했다. 지금 광주교육의 지향성은 시대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다. 평균의 함정과 평등적 획일성을 뛰어넘어 따뜻한 인성과 다양한 실력을 겸비한 인재상을 길러야 하는 일이 시대적 요구다.

社說

다문화 위한 '기회의 사다리' 응원한다

의미 큰 전남 다문화 친화교육

전남도교육청이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주배경학생들이 전남에서 꿈을 키워 정주할 수 있도록 다문화친화 교육에 공을 들이겠다는 게 전남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지역적 특색을 기회로 이주배경 아이들이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도전을 응원한다.

지난 2019년 1만여 명에 불과하던 전남지역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1만 1616명으로 5년 새 10.45% 늘어났다. 같은 기간 8.45% 줄어든 전남 전체 학생의 감소율을 감안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이들이 재학하는 학교도 전체 1349개 학교 가운데 1137곳에 이른다. 특히 신안과 영암, 보성, 함평 등은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13%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은 미흡했다. 섬처럼 고립된 아이들이 한국에 동화될 기회를 잃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의 말처럼 '전

남의 많은 이주배경학생은 지역의 훌륭한 교육적 자산'이다.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을 찾은 다문화 가족들이 열악한 교육과 환경으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이면이다. 저출산을 넘어 지역과 인구소멸의 시기에 접어든 지금, 노동력 확보와 사회 유지는 물론 다양성을 통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이들과의 공존은 필수적이다. 포용과 다양성, 공생을 통해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조화로운 글로벌 인재 양성'도 우리의 다문화 수용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다.

경쟁력 있는 다문화국가라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성공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주배경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전남도교육청의 도전은 의미가 크다. 오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는 가칭 전남글로벌직업고등학교도 언어와 문화적 감성을 살려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다. 인구 절벽에 맞닥뜨린 한국의 미래는 결국 이주배경학생을 우리가 어떻게 보듬느냐에 달렸다.

청소년 제한 뒤야 할 무제동 픽시 자전거

위험성 높아 현장 단속 등 절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특성상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멈추기가 어려워 페달 역방향으로 힘을 가해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 기술을 함께 사용한다. 해당 기술이 SNS에서 역동적인 음악과 스키딩 장면을 담은 숏폼이 인기를 끌면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묘기를 부리기 위해 픽시 자전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대당 가격은 40만원 정도를 호가한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를 줄여서 사용한 말로, 뒷바퀴에 기어가 고정된 고정기어 자전거를 말한다. 해당 자전거는 페달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프리휠 기어가 없으며 페달을 밟으면 가고, 멈추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 경기장에서 타는 선수용 자전거로 사용됐으며, 장애물이 없는 전용 트랙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브레이크

를 잡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겨났다. 선수의 경우 시속 70~80km, 일반인도 6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며 위험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0대 미만~10대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9년 21건, 2020년 31건, 2021년 35건, 2022년 35건, 2023년 32건 등으로 총 154건 발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2019년 61건, 2020년 87건, 2021년 85건, 2022년 59건, 2023년 68건 등으로 총 360건에 달한다.

전문가용 자전거가 초보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급제동이 어려워 충돌 위험이 높다. 인파가 몰리는 산책길이나 광장에서 픽시 자전거를 탄다면 지나가는 행인 등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다. 행정당국의 자전거 사고 예방 홍보와 현장 단속이 절실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청소년에게 제한을 두는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일 서울 중구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이 스마트팜 체험을 하고 있다. 도심형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등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생육환경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흙 대신 영양혼합액을 사용해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뉴스스**

서석대

'페르소나(persona)'는 극에서 쓰이는 탈을 뜻하는 라틴어로 사회 역할이나 배우에 의해 연기되는 등장인물을 의미한다.

철학용어로는 이성과 의지를 가진 개별적 존재자, 현대에 와서는 '가면을 쓴 인격',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한 개인의 모습을 뜻한다.

그리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요즘, 나 자신도 몰랐던 '디지털 페르소나'가 휴대전화나 SNS를 통해 누군가의 유희거리로 이용되고 있었다.

최근 특정인의 얼굴 이미지에 음란물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Deep Fake)'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화두로 오르면서 대학가는 물론 학원가까지 들쭉이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의 타깃은 더이상 유명인들이 아닌 평범한 '우리'였고, 그 수위는 개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누구나 쉽게 게시할 수도, 볼 수도 있는 일상적인 사진들이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일부 시민들은 SNS 사진을 삭제하는 등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공지능(AI)의 상용화가 시작되던 시기부터 우려를 샀던 영역이기에 관련 법도 이미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6월 신종 디지털 범죄로 딥페이크 영상물이 활개를 치자 관련 법이 도입됐다. 현행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라 반포 등을 할 목적



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은 여전히 신고도,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개된 사진을 범죄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범죄 특성상 가해자 특정과 처벌 조항 적용이 어려워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교묘히 피한 범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몇번의 터치만으로 수많은 '디지털 페르소나'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인간의 삶을 파괴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단호하고 엄정한 형사제재가 필요하다.

하루 하루 빨라지는 기술의 발전에 맞춰 진화하는 성범죄 양상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경찰, 지자체를 비롯한 정부 역시 이제 모니터링에 의존하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해 법과 제도 내에서 범죄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김은지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